

乙那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全 京 秀*

目 次

- I. 문제를 제기하면서
- II. 文化傳統：新郞代와 開國大業
- III. 脫傳統：儒式화와 植民化
- IV. 마감하면서

I.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화유산이 소략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제주를 무대로 한 신화의 존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들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들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신화라고 하면, 허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소위 “과학적”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풍조가 지배하는 오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다. 과학이라는 것도, 신화라는 것도, 모두 인간의 생활과 사상을 담아내는 문화라는 그릇을 이루고 있다. 과학의 논리라는 것이 신화의 논리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두 논리의 다름이라는 현상 때문에, 양자는 각각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의 논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문화 속에서는 문화가 풀어내는 논리에 의해서 과학과 신화의 논리들은 상호 배타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의 논리 속에서는 과학의 신화성이라는 문젠과 신화의 과학성에 관한 논의들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단지 글자 몇자에 의존하는 신

* 서울大學校 人類學科 教授

화의 해석은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 몇자에 담긴 내용의 풍부성과 그것이 겨냥하는 역사를 감안한다면, 신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면으로 맥락에 닿은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맥락이란 것은 문화적 맥락을 말하는 것이다.

명칭이라는 것에는 그 명칭을 붙인 주인공들의 사상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신화의 명칭에 담긴 사상과 이념들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영어의 Myth에서 출발한 신화라는 용어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용어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도구로 수입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학문을 논하는 한계를 미리 설정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용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한계를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문화권에서 공용되고 있는 한자라는 글자의 권력과 매력에 나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세편의 논문을 통하여 『高麗史』에 등장한 제주 관련 “神話”에 대해서 몇가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탐라사회의 부계혈통전통, 외혼제, 부거제, 이주민집단의 문제, 소위 “삼성신화”라는 명칭의 문제, 농경의 출현 등이다(全京秀 1987, 1992a, 1992b). 물론 이상에 언급된 문제들 중 몇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張壽根 1960, 1975, 1986; 허남춘 1992; 玄容駿 1983 등). 그러나 아직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난제들이 있고, 몇가지 견해들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화와 관련되는 어떤 주제든지 간에 관심있는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토론을 해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신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하는 사람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성이라는 과제가 따라 다니기 때문에, 신화에 관한 논의는 항상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화의 역사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본고는 소위 ‘三姓神話’라고 불리는 것의 命名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그 신화의 참뜻을 헤아려보려는 목적과, 그 신화에 담긴 사회구조적인 내용들을 해석함으로써 신화에 등장하는 문화담당자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을 지향하고 있다. 후자의 목적은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물론 본고에서 필자는 이 신화에 담긴 내용들을 모두 분석 하려는 만용을 부리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수준에서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전통을 다루는 장에서는 을나신화의 내용을 분석 하여, 그 속에 담긴 문화담당자들의 전통문화를 파악하려고 한다. 탈전통을 다루는 장에서는 신화의 전통적인 내용을 의미변질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 하고, 의미변질의 시도들이 본래 신화가 지향하는 바를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정주장을 호소하고자 한다.

II. 文化傳統：新郎代와 開國大業

姓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는 그리 오랜 일이 아니지만, 지배세력 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성이 적용되었던 것도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려사에 등장하는 良·高·夫의 세 성을 각 성씨집단의 시조로 받아 들여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시조라고 하는 것은 宗族(lineage) 차원의 실재했던 시조가 아니라 氏族(clan) 차원의 시조 즉 신화적인 차원의 시조라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할 일이다. 그 세 성이 문자로 정착될 때, 한자를 빌어서 가장 근사하게 음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음 이 어땠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일이다.

세 씨족집단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다. 씨족의 연합을 우리는 부족이라고 일컫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족집단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즉 씨족집단 차원의 문체의 식은 이 신화가 지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씨족의 수준이 부족의 수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씨족간의 연합메카니즘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단서를 포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필자는 이 부족을 耽羅部族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신화에 관한 고려사의 내용중, 처음에 등장하는 “三神人從地窟出”이라는 것이 기존했던 씨족들의 연합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신인이 함께 毛輿에 출현하였다는 것이 바로 씨족연

함에 의한 부족의 출현일 수 있다.

후반부에 나오는 “神子三人”이 전반부에 등장했던 “三神人”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그동안 이 신화의 연구자들이 견지했던 일관된 견해인 것 같다. 필자는 이 신화에 내재된 시간의 깊이를 생각하고, 신자삼인은 삼신인의 후예이며,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신자삼인이 일본국(또는 벽랑국)으로부터 온 처녀들과 혼인을 함으로서 탐라부족은 일본국과 혼인동맹을 맺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國”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혼인동맹을 맺는다는 현상이 탐라부족의 정치수준을 탐라국의 정치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부족이 연합하여, 부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國”이라는 정치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삼신인은 탐라부족의 정치적 배경을 보이는 주인공들이고, 신자삼인은 탐라국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보이는 주인공들이라고 풀이된다.

특히 신자삼인이 처녀 삼인과 혼인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은 탐라국의 정치적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將欲開國而無配匹”,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는 것은 개국과정에 개입되는 혼인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 때 개국에 도움을 주는 혼인과정이란 것은 혼인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지위상승을 의미하는 절차일 것이다. “宜作配以成大業”의 구절에서, 宜作配는 혼인을 이룸이고, 그후 大業을 이루라는 당부인데, 이 때 大業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大業은 바로 耽羅國의 開國일 수 있다. 이 신화의 대미는 바로 대업의 이룸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내용은 탐라부족으로부터 탐라국의 창건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탐라국의 국이라는 것의 상태는 초기고대국가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생산력과 정치적 위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일본국의 왕이 세 딸을 신자삼인과 혼인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新郎代(bridgroom price)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다. 木函 속에 石函과 使者가 있다는 것은 사자가 석함에 따라왔다는 것이다. 사자가 석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아니다. 사자가 석함을 가지고 왔다면, 그 석함은 일본왕이 보내는 선물의 일종일 수 있다. 사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석함이 주인공이고, 그 석함속에서 처녀삼인과 우마와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목함 속에 처녀 삼인과 사자 그리고 석함이 들었다고. 즉 처녀가 오곡과 우마를 가지고 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형적인 지참금(dowry)일 수 있다. “지참금은 死前相續(pre-mortem inheritance)의 일종으로서 여성의 결혼시에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권리이거나 또는 여성의 재산을 의미한다”(Tambiah 1973 : 64). 즉 지참금이란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에서 상속의 의미로 주는 재산을 말하며, 그것은 그 딸의 개인적인 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면, 고려사의 내용은 처녀 삼인과 우마 그리고 오곡의 종자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되어 있다. 이것은 혼인과정에서 신부댁으로부터 신랑댁으로 가는 재산이 지참금의 형식이 아니라 신랑댁의 형식에 가깝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처녀 삼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왔다면, 그 지참금은 일본왕이 세 딸에게 상속한 재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고려사의 내용은 신부와 재산이 한덩어리로 신자삼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지참금은 딸에게 보내는 상속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며, 장인이 사위 또는 사돈댁에 보내는 재물로서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감안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harma 1993 : 352). 즉 신자삼인이 탐라에서 정치적 위세를 획득하는 방법이 신부댁에서 신랑댁으로 보낸 신랑대에 연관된다. 그 신랑대의 위력은 새로운 생산력을 보장하는 농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인과정에서 두 집단 사이에 교환되는 물질이나 자원을 일컫는 민족학적인 용어들은 지참금(dowry)과 신부대(bridewealth) 그리고 신랑대(bridegroom price)다. 그런데, 이 신화의 내용에는 신랑대가 등장하고 있다. 신부대는 기본적으로 富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지참금은 계급의 형성과 유지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Goody 1976 : 9). 그리고 신랑대는 사회적 기금(societal fund)의 역할을 한다(Caplan 1993 : 378). 지참금은 신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한다. 신부와 함께 증여되는 신랑대는 신랑댁의 것이기 때문에, 신랑댁에서는 이 자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을나신화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랑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신랑대는 신자삼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탐라국의 개국을 위한 조건이 일본국왕이 보낸 신랑대에 의해서 구비된 것이며, 그 결과로 신자삼인의 정치적 지위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졌음을 감안할 수 있고, 신자삼인은 상대적으로 지배자의 자질을 구비하기에 이르는 것 같다. 신화의 내용에 등장하는 오곡과 우마를 지참금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다.

비교문화적인 자료들을 일별해 보면, 신랑대와 仰婚制(hypergamy)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남아시아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는 것처럼, 신부측의 사회적인 지위가 신랑측의 사회적 지위보다도 저급한 경우, 신부측에서는 많은 재물을 신랑대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신랑대와 양혼제가 결합한 상태를 을나신화에 적용시키게 되면, 을나시대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즉 당시 일본국의 지위와 탐라국의 지위를 비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는 함의가 알파한 민족주의적인 편견의 소치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주장을 유보하기로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日本國”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을나신화가 최종적으로 문헌에 정착한 시기가 조선초의 세종조라고 한다면,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일본국의 국제정치적인 지위 및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을나신화에 등장하는 일본국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을나신화에 등장하는 일본국은 최소한도 조선중기 이후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 일본국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을나신화에 등장하는 “日本國”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종래 백제나 신라와 같이 국가의 건설에 개입한 이주민의 등장과 비교할 때, 탐라의 경우에는 이주민이 혼인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동맹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탐라국의 형성은 이주민에 의한 지배세력의 구성이 아니라, 토착민이 이주민의 도움으로 지배세력을 구성하고 국가형성이라는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자삼인이 청의처녀들과 각각 혼인을 하고, 신랑대로 보내온 오곡을 파종

乙那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하고 우마를 사육할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구절은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로 시작된다. 물 좋고 기름진 땅은 농경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삼신인 시대의 遊獵방식은 신자삼인이 대업을 이루는 시대에는 더 이상 걸맞지 않는 생활방식이며 생산양식이다. 유럽방식으로는 대업을 지탱할 잉여생산을 보장받기 어렵다. 따라서 개국이라는 대업에 걸맞는 생산방식으로서 농경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인의 卜地방식이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각기 활을 쏘아서, 각자의 居所를 정했으며, 그 거소를 기반으로 농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장·차·삼이라는 序次에 관한 해석이 조선후기에 확립된 가족내의 위계질서에 비추어지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의 分財記들은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남녀와 서열에 관계 없이 균분상속의 방식이었으나, 후기로 올라오면서 남녀와 서열에 따른 상속상의 차별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초기에 고려사에 정착된 장·차·삼의 서차를 조선후기에 성립된 위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차에 의해서 長이 유리하고 많은 장소를 확보하였다는 가정은 조선초기나 고려시대의 관점일 수 없다. 탐라국 사회의 특징을 조선후기를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가능하고, 탐라국의 상황은 조선후기처럼 위계사회가 아니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환언하면, 탐라국은 위계적인 전통에서 개국된 국가가 아니며, 서차에 의한 확실한 위계성의 부재가 탐라국의 국가로서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다. 확실한 위계에 의해서 강력한 고대국가의 등장에는 못미친 탐라국의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의 國이라는 것은 위원회(council)의 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지, 정부(government)의 등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삼이라는 서차는 위계성을 기초로 한 서차가 아니라 구분을 위한 범주의 의미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기의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탐라국의 정치적 수준이자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

Ⅲ. 脱傳統：儒式化와 植民化

고려사의 원문에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라고 한 구절은 세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長·次·三이라는 序次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良·高·夫라는 姓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공통으로 등장하는 乙那라는 단어다.

첫째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차·삼의 구분이라는 것은 위계적인 서열의 의미가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의 문제는 첫째의 문제와 연결될 경우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동안 이 신화의 내용을 두고 왈가왈부했던 원인이 되기도 한 경우다. 성을 중심으로 이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신화는 성씨와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이 신화에 대해서 지어진 이름이 “三姓神話”인 것이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현존하는 세성반이와 그들 집안의 시조들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주장은 이 신화를 세 집안의 맥락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빚어낸다. 즉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탐라부족이 탐라국을 형성해가는 과정 즉 정치적인 관점을 가족적인 관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삼신인이 세성반이의 시조라는 점도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신화의 내용은 집안의 문제를 주 내용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개국과정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의 문제는 “을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다.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계급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高麗史의 世家에 등장하는 女眞 추장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에서 몇개의 “을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탐라의 을나에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삼신인이 개별 씨족을 기반으로 하는 탐라부족의 우두머리들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乙那는 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양·고·부의 姓에 집착한 사람들이 깊은 사려없이 이 신화를 ‘삼성신화’라

乙那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고 쉽사리 명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미 조선시대에 三姓祠 또는 三姓壇 등의 단어들 이 등장한 것이 그러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조선시대의 성씨중심사상이 이 신화에 침투된 형태로 나타난 단어들 이 바로 삼성사 또는 삼성단 등의 용어들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이념과 사상이 강한 시대적 배경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신화의 사회성을 경시하고 그 신화가 지엽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집안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乙那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신화를 해석하는 입장과 三姓이라는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신화를 해석하는 입장 사이에는 역사를 보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신화에서 을나의 의미를 부각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신화가 내포하는 정치적인 집단과 그 집단의 우두머리의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성의 의미에 우리의 견해를 집착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신화의 분석수준을 성씨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문제로 축소시키게 되는 논리적인 틀 속에 안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서기 1105년 탐라국이 고려의 탐라군으로 복속된 이후에, 탐라국이란 용어나 개념이 금기시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이후 조선시대를 경유하면서도 탐라국의 분리독립을 종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엄격히 통제되었을 것이고, 이 신화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을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삼성을 내세우는 전략, 즉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내용보다는 집안과 성씨중심사상의 내용으로 축소되도록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을나신화의 儒式化라고 지적할 수 있고, 유식화가 脫傳統의 중요한 맥락이다.

“三姓神話”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하였는가? 필자는 이미 이 용어의 출현을 일제시대의 조선어독본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문헌을 찾아 본 결과, 1923년에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普通學校 國語讀本 卷五』의 5쪽에서 13쪽까지에 이 신화의 내용이 “三姓穴”이란 제목하에 실려있다. 따라서 기왕에 제시된 필자의 추정이 의존했던 정보들은 빛나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毛興이 “三姓穴”이란 용어로 대체된 것도 유식화의 일환이라고 보인다. 신화라는 단어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제되었고, 일제에 의해서 수입된 것임은 분명하다. 1914년 여름 濟州普通學校에서 鳥居龍藏

이 행한 강연회의 내용 중에서 “三神人의 配匹에 關한 神話나……” (濟州島廳 1924) 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을나신화를 “神話”라고 지칭한 최초의 진술이 鳥居龍藏에 의함을 지적할 수 있고, 조선시대로부터 유식화되어 사용되던 삼성이란 용어에 신화라는 용어가 조합되는 기틀이 일제의 학자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李朝”라는 집안의 문제로 격하된 명칭으로 변조된 상황은 “을나”가 “삼성”으로 변조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변조의 기본정신은 바로 植民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을나신화의 식민화는 이미 조선시대의 “三姓”化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며, 그것은 일제의 강점기간 동안에도 별 문제없이 답습되었고, 학술용어로 포장된 것이 “三姓神話”라는 용어다. 1937년도 濟州島廳에서 발행한 『濟州島勢要覽』에서는 “三姓氏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濟州島廳 1937: 1), 조선을 이조로 변조한 일제의 의도가 제주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을나신화의 식민화라고 지적할 수 있고, 植民化가 脫傳統의 중요한 맥락이다. “三姓神話”라는 용어가 학술영역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주근 교수가 1960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한 것이라는 심중이다. “삼성신화”라는 용어와 장교수, 그리고 유식화와 식민화의 과정을 삼각으로 연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 용어는 장교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용어에 깔린 사건들의 설명이라는 과정에서 그 용어와 유식화 및 식민화는 일말의 연계성이 파악된다. 그러나 장교수와 유식화 및 식민화의 과정은 연계관계가 없다. 즉 장교수께서 유식화 및 식민화의 과정과는 무관하지만, 그 과정과 용어 사이에 얽힌 사건들의 설명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유식화와 식민화에 의한 탈전통을 경험한 을나신화에 대한 문헌비판과 사상 비판이 전제됨 없이 소위 “삼성신화”라는 용어가 현재 거의 공식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제주의 문화전통이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이 용어는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고, 제주에서의 을나는 용어상로나마 복권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乙那複權의 상징이 이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일 수 있다.

乙那神話의 文化傳統과 脫傳統

성과 성의 서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씨중심사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성에 집착한 나머지 고려사의 기록을 위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소위 "瀛洲誌"라는 필사본의 문서를 더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을 한다. 영주지를 옹호하는 주장들도 그럴듯하다. 문체가 훨씬 더 고색창연하다는 것이다. 고색창연한 문체는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박용후 선생은 타계하기 직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문건은 족보류라는 결론은 내렸다(朴用厚 1991: 22). 그분이 타계하기 직전에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주지를 둘러싼 압력을 의식한 결과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동일한 견해가 이미 장주근 교수(1975)와 필자에 의해서 피력된 바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압력에 대하여 "육지"라는 면죄부 격(또는 방탄용)의 부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주지라는 문건에 권위를 불어넣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것이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다. 濟州道教育委員會가 1976년에 발행한 『耽羅文獻集』의 2쪽에서 4쪽에 이르는 곳에 영주지는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면의 연구자들은 거의 다 탐라문헌집을 인용하여 영주지의 소재가 규장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회에 재삼 강조해 두어야 할 확실한 사실은 규장각에는 영주지라는 문건이 없고, 영주지라는 필사본의 문건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만든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왜 이런 황당무제한 일이 발생하는가? 제주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IV. 마감하면서

소위 "삼성신화"라고 불리게 된 이 신화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하는 분석은 탈전통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동시에 을나신화의 문화전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乙那神話의 文化傳統은 氏族연합에 의해서 部族이 출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혼인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한 耽羅國의 開國大業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 을나신화의 의미변질이 의도된 脫傳統의

과정은 儒式化와 植民化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 탈전통의 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헌비판과 사상비판이 따르지 않으면, 이 신화의 진면목은 발휘되지 않는다.

어설픈게 엮어진 제주관련문헌의 편집작업이 발생하였고, 후학들은 한번도 原典을 찾는 노력을 않고, 어설픈 작업에 매달린 결과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문헌들이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주석이 달리고, 일반인들까지 어려움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오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창피스런 일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적인 문헌정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 이런 창피스러움을 덜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집안싸움에 멍든 耽羅國의 乙那神話’, 이것이 오늘날 제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을나신화의 新版이고, 그 신관은 소위 ‘三姓神話’라는 이름으로 운색된 것이다. 을나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탐라부족의 상태에서 개국대업을 이루는 과정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다. 이 신화의 명칭을 ‘삼성신화’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신화의 내용을 왜곡되게 해석할 소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 왜곡성은 집안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檀君神話を 桓姓神話 또는 桓氏神話라고 부른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모두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탐라국 개국설화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집안문제의 수준으로 신화의 의미를 축소시킨 질곡으로부터 을나신화를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집안문제와 관련된 을나신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後記 : 본고의 작성은 玄容駿 교수의 격려로부터 시작되었다. 반대의견을 마다않고, 오히려 공개적인 장을 마련하여 토론의 기회를 주신 玄교수님께 머리 숙여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신화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 朴用厚 선생님의 타계를 아쉬워 하며, 그분의 명복을 빈다.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성원

과 함께 긴요한 자료를 보내주신 金仁顯 선생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

참 고 문 헌

- 朴用厚, 1991, “瀛洲誌에 대한 考察”, 濟州島史研究, 1 : 11-23.
- 張壽根, 1960, “三姓神話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 65-70.
- 1975, 韓國의 鄉土信仰. 서울 : 을유문화사.
- 1986, “濟州島 堂神話의 구조와 의미”, 濟州島研究 3 : 249-256.
- 全京秀, 1987, “上古耽羅社會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濟州島研究 4 : 11-45.
- 1992a, “濟州研究와 用語의 脫植民化”,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
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編. 제주 : 제주문화. pp. 481 -
494.
- 1992b,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濟州島研究 9 : 257-270.
- 濟州島廳, 1924, 未開の寶庫 濟州島.
- 1937, 濟州島勢要覽. 京城 : 朝鮮印刷株式會社.
- 허남춘, 1992, “三姓神話 一考察”, 濟州島言語民俗論叢, 玄容駿博士華甲紀念
論叢刊行委員會編. 제주 : 제주문화. pp. 265-280.
- 玄容駿, 1983, “三姓神話研究”, 耽羅文化 2 : 45-93.
- Caplan, Lionel, 1993, “Bridegroom Price in Urban India : Class, Caste
and ‘Dowry Evil’ Among Christians in Madras”. *Family, Kinship and
Marriage in India*, ed. by Patricia Uberoi. Delhi :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7-382.
- Goody, Jack, 1976, *Production and Reproduction :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domai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rma, Ursula, 1993, “Dowry in North India : Its Consequences for
Women”, *Family, Kinship and Marriage in India*, ed. by Patricia Uberoi.
Delhi :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1-356.
- Tambiah, S. J. 1973, “Dowry and Bridewealth and the property rights of
women in South Asia”. *Bridewealth and Dowry*, eds. by J. R. Goody
and S. J. Tambia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9-169.